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잿더미...광주 전통시장 가보니

노출 전선에 가게 다닥다닥...불나면 속수무책

스프링클러 없고 LPG통 방치...소방차 진입 불가능

화재 취약 E등급 시장 4곳...보험가입도 제대로 안돼 막막

지난 30일 오전 호남 최대 규모 전통시장인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7개 시장이 대규모 시장을 이루고 있는 양동시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건어물시장, 수산시장, 양동시장은 사실상 고립된 공간이었다. 도로가 인접한 복개상가와 경열로시장 등과 달리 다른 시장과 건물에 둘러싸여 있는 건어물시장 등 3곳은 좁은 시장 통로로만 이동이 가능해 사실상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 투입이 어려워 초기 진압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불길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점포들을 타고 삼시간에 걸쳐 양동시장 1330여곳의 점포 전체를 집어삼킬 가능성이 커보였다. 또 시장 곳곳 벽면에는 콘센트 등 전기 배선이 어지럽게 설치돼 있어 언제고 화재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화재 진압용 스프링클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구불구불하고 좁은 시장 통로에는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 위급 상황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해 보였고, 소규모 점포 500여곳이 빈틈없이 붙어 있어 불길이 목재건물과 이불 등을 타고 빠르게 번질 가능성이 컸다. 시장 내 점포마다 스프링클러는 커녕 소화기조차 찾아보기 어려웠고 LPG 가스통이 그대로 노출돼 있어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였다.

대구 서문시장 4지구가 한밤중에 발생한 불로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한 가운데 이날 잦은 광주지역 전통시장도 대형 화재

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광주시청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광주지역 내 전통시장은 모두 31곳(상인회 미등록시장 포함)이다. 이중 올해 중소기업청 비상안전담당관실이나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을 통해 화재 등급(A~E) 판정을 받은 12개 전통시장 중 최하위 등급인 'E' 등급에 해당하는 시장은 양동산업용품시장, 양동경열로시장, 송정매일시장, 서방시장 등 모두 4곳이나 됐다. 화재 등급 판정을 받은 시장 3곳 중 1곳이 소방설비가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고 관리상태가 불량해 상당한 수준의 개선이 요구되는 시장으로 분류된 것이다.

지역 내 전통시장 대부분은 개설된 지 30년 이상으로, 시장 내 불길을 차단할 방화벽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없어 불길이 목조 건물이나 이불, 의류 등을 타고 삼시간에 번지기 쉬운 상황이다.

소방차의 진입을 막는 시장 입구의 좌판이나 차량, 점포 구석구석에 숨어 있어 제때 찾기 어려운 소화기 등은 광주지역 전통시장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소방서를 중심으로 화재를 대비해 정기적으로 소방통로 확보 등 훈련을 진행하지만 이마저도 그때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재보험 가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화재 발생시 보상도 막막한 상황이다. 지자체가 화재보험 가입 독려 캠페인을 진행하지만 개별 점포로 이뤄진 전통시장의 특성상 전체 가입자 파악이 쉽지 않



다닥다닥 붙어 있는 광주시 북구 말바우시장 내 이불 점포(위)와 전선이 어지럽게 배치돼 있는 서구 양동시장 내 건어물시장.

고, 손해보험회사 측에서도 위험 부담이 큰 전통시장의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다.

말바우시장에서 만난 한 60대 상인은 “오늘 대구에서도 불이 나서 난리던데 남일 같지가 않다. 불이 나면 망하는 것”이라며 “불이 나도 119를 불러야지 소화기가 무슨 소용이겠느냐”고 말했다.

소방사 관계자는 “불길이 번지기 쉬운 환경에 있는 전통시장은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한데 소방통로가 개설돼 있지 않은 시장도 있다”며 “지자체가 나서 소방통로를 만들거나 확보하고, 화재 예방과 불길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순천 등 전국 6만명 퇴진 촉구 총파업 깃발

민노총 ‘시민불복종의 날’

전국 16개 도시 동시 개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와 시민들이 지난 30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총파업 깃발을 들었다. 노동계가 단합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인 것은 한국 노동조합 역사상 처음이다.

민주노총 총본부는 이날 오후 4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조합원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불복종의 날’ 선포 및 1차 총파업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도 같은 시간 순천시 효호로에서 조합원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대

회를 열었다.

이날 광주·전남지역 총파업대회에 참석한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건설노조, 학교비정규직 노조, 공무원노조 등 소속 노조원들은 4시간 이상 파업에 들어갔다. 농민, 중소상인, 대학생 등도 이날 시민저항 행동에 참여했다.

광주·전남지역 노동자 5000여명은 이날 총파업 결의문을 낭독하고 박 대통령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 재벌 해체, 사드 배치·국정 역사교과서 철회, 노동 개악법 폐기 등을 요구했다.

총파업대회는 대화사, 투쟁사, 연대사, 총파업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

본부는 ‘재벌을 규탄하는’ 의미에서 금남로에서 광주경주까지 행진한 뒤 오후 6시부터 광주 금남로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전국 16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이날 총파업대회에는 모두 6만여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전체 참여 인원이 모두 22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정형택 광주본부장은 “불의한 권력에 맞선 역사적인 ‘정권 퇴진 총파업’의 깃발을 올렸다”며 “2차 총파업과 시민 불복종 행동으로 박근혜 정권을 역사의 단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총파업에 전국적으로 6만835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공사 수주 관련 뇌물 받은

전남 郡 비서실장 체포

관공서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남의 한 기초자치단체 비서실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공사 수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남 모 군 비서실장 A씨를 체포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범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하고, 그의 사무실에서 업무일지, 통장 등을 압수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광주시와 자치구, 전남도 산하기관과 지자체 등을 상대로 납품 비리와 공사수주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되찾은 현금에 웃돈 얹어 기부한 사업가

‘내 돈 아니다’ 생각...3700만원 더해 5000만원 쾌척

복지시설마다 후원이 줄어 힘겨운 겨울나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50대 사업가가 잃어버린 현금을 하루 만에 되찾은 뒤 수천만원의 웃돈까지 얹어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다.

이상동(54·가든주류 대표)씨는 지난 28일 밤 10시43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길가에서 현금 1300만원(5만원권 260매)이 담긴 쇼핑백을 잃어버렸다. 휴대전화 통화를 위해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 3개를 다른 손으로 바꿔들면서 현금 봉지가 든 쇼핑백 1개를 빼뜨린 것이다.

다음날 아침에서야 현금 분실 사실을 안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광주북부경찰의 도움을 받아 현장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시간을 뒤져도 현금이 담긴 쇼핑백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씨는 잃어버린 돈을

되찾겠다는 생각을 거의 포기했다. 바로 그때 이씨와 경찰은 30대 청년이 지난 밤 주운 현금 봉지를 구청 민원실에 맡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곧장 경찰과 함께 구청으로 달려가 현금 봉지를 되찾았다. 기쁨도 잠시, 이씨는 고소란히 자신에게 되돌아온 현금 1300만원이 ‘내 돈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이씨는 아내와 상의한 끝에 되찾은 돈에 3700만원을 더해 모두 5000만원을 자신이 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광주 북구새마을회에 기부했다. 돈을 찾아준 30대 청년에게도 사례금을 전했다.

이씨는 “처음에는 답답하기도 했지만 돈을 되찾고 나니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좋은 사람이 찾아준 돈을 뜻깊은 곳에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태양광 사업 허가 뇌물 한전 직원 2명 구속

급행료 책긴 전남도공무원도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태양광발전소를 뇌물로 받은 한 국전력 직원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업자들 사업허가 편의를 봐주고 ‘급행료’를 책긴 전남도 공무원도 함께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태양광발전소 허가 운영에 필수적인 전기 판매 선로를 몰아준 대가로 시공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책긴 한전 해남지사 전력공급팀장 백모(55)씨와 같은 지사 노조지부장 유모(56)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경찰은 사업 허가 편의를 봐주고 돈을 책긴 전남도 공무원 진모(44·6급)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시공업자와 한전 직원들을 연결해준 알선 업자 강모(59)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업자 이모(44)씨 등 3명도 증거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전 직원 백씨는 지난

2013년 12월 사업 허가 운영에 필요한 선로를 몰아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업자들로부터 7000만원 상당의 30kW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무상으로 받았다. 또 시가 2억8000만원 상당의 99kW짜리 태양광발전소를 1억9500만원에 넘겨받는 등 총 1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책긴 혐의도 받고 있다.

노조 간부 유씨도 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아내 명의로 2억8000만원 상당의 99kW짜리 태양광발전소를 8500만원 저렴한 1억9500만원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공무원 진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업자들로부터 5차례에 걸쳐 1580만원을 받고서 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준 혐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한전직원 상당수가 발전사업을 금지한 법을 어기고 다수의 발전소를 보유, 운영 중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불법 채류자 약점 악용 임금 수천만원 떼먹은 악덕업자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분상 약점을 이용해 임금 수천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건설업자와 임원이 경찰에 들림.

○·지난 30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건설업자 정모(52)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주시 북구 아파트 공사 현장과 광산구 빌라 건설 현장에서 고용한 중국인 근로자 서모

(27)씨 등 외국인 근로자 21명에게 쥐여 할 임금 6690만원 가운데 300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정씨 등은 “불법채류자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겁을 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다가 붙잡혔는데, 경찰 조사에서 정씨 등은 “임금 체불을 시인한다. 경찰조사가 끝나는 대로 밀려있던 임금을 곧바로 전액 지급하겠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

미수금 회수대행

- 못받은 돈 -

▶채권 추심(회수) 전문

· 민사 채권 : 판결문, 공증 외

· 상사 채권 : 물품/공사/용역/매매대금, 장비대여 대금, 상가보증금 외

▶채무자(개인·법인) 재산 및 신용조사

(부동산, 차량, 중기, 거래은행, 신용상태 등)

▶연락두절 채무자 및 실거주지 파악

▶차용증, 각서, 은행입금내역, 계약서, 거래장부 등 모든 채권에 대한 명쾌한 상담 가능!

채권 추심 경력 20년 노하우

새한신용정보(주) (금감위 허가업체)

010-8607-1122 (전남대 법대졸업)

(062) 513-4307

정직 · 성실, 최선을 다해 회수해 드립니다

농성동

무등산타워

10층 상가매매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뷔페식당 · 사무실 · 병원 등 최적입지

▶수의계약진행

감정가 : 32억원

매매가 : 22억원

▶전용면적 : 1,070㎡(10층 전체)

문의

국제자산신탁

02-5202-3087

완도금일수협

062-364-2018

건 축 물 에 예 술 을 입 히 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시공 단계·

Step 1. 방수장리

Step 2. 단열바이스카짓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한국방수연구소 연구원 고사 제2009-24호에 의거한 방수성능시험 합격 제품!

5분 이상 불로 가열해도 물이 스며들지 않고 먼저 들어가지 않는 실험 동영상 시청

·실제시공현장·

충북 옥천문화원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장점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2/ 건축 내외장재 패던디자인이 난 엔디니와의 클라보 디자인!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 데...!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2중안벽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시공사례

상명대학교/광명군보건의료/대전대학교/태백시보건의료

안성시립도서관/강화군청/안동군청/부산시청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